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5호**

**글렌데일 비상사태 권한에 의거함**

**발급일: 2020년 3월25일**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부의 조치 (주거용 월세 동결)**

2020년 3월 16일에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질병2019(코로나19)으로 인해 커지는 우려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하는 여러가지 결말이 있게 된다. 확진자 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확산되므로 일반인들은 어디든지 가능한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3월 16일에 시의회는 특정 공공시설의 출입을 폐쇄하고 제한할 것을 명령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권고받은 강제적 사업 폐쇄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월세, 모기지, 공과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사업체의 능력이 저하되었으나, 상업용 임대 안정성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위생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제,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허가된 공권력으로, 비상서비스국장은 오늘밤 11시59분부터 발효하고 2020년 4월 30일 밤 11시59분까지 유효한 다음 명령을 발표한다.

1항. 글렌데일 시의회가 결의안 20-33호를 법으로 제정한 의도에 따라 이 전례없는 비상사태에 글렌데일 주민에게 구제책과 보호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렌트 동결이 발령되었다. 즉시 발효하며, 렌트 인상 통지서를 발송한 시기와 상관없고, 주거용 세입자의 렌트는 이 명령일부터 시작하여 지역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동일한 비율로 유지될 것이다. 비상사태가 끝날 때, 렌트를 인상하려는주정부 법에 따라 집주인은 렌트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짜와 인상액이 분명히 나온 새로운 렌트 인상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2항. 이 명령은 2020년 4월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  
03:45 P.M.  
시간: \_\_\_\_\_

  
서명인: \_\_\_\_\_  
야스민 K. 비어스  
비상사태 서비스국장

양식 승인:  
마이클 J. 가르시아, 시 검사

서명인: Michael J. Garcia

직분: 시 검사

날짜: 2020년 3월 25일